

2014년도 직영·수탁시설장, 부장(사무국장) 연수 평가 / 모듬토의 정리

I. 개요

사 업 명	2014년도 직영·수탁시설장, 부장(사무국장) 연수		
목 표	목 표	산출목표	성과목표
	직영·수탁시설장, 부장 92명이 참석한다.	직영·수탁시설장, 부장 중 약90% 이상의 참석 (총103명(시설장 :82명, 부장 :21명) 중 90%)	참석률 향상
	2015년 법인 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2015년도 교구의 사목교서와 법인 사목목표에 대한 공유를 통한 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교구와 법인, 시설의 공동체성 강화
	공동해결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향후 3년간의 5대 해결과제 해결방안 및 세부프로그램 도출	법인, 시설의 공동발전을 위한 연대성 강화
	연수에 대한 만족도 향상	교육만족도 점수 평균 8점 이상 획득	만족도 향상
교육대상	시설장 및 부장(사무국장) 명 중 82명 참석		
교육일시	2014년 11월 7일(금) 09:00 - 8일(토) 13:00	장 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담당자	교육·홍보팀 김태환	제 출 일	2014.11.24.

II. 참가자 평가 설문지 분석

82명 교육 참석자 중 65명(79.3%)이 설문에 응답함.

• 전체 평균값

문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서울대교구의 사목교서와 사목지침에 대한 이해 정도	65	4.00	10.00	8.66	1.1629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사목방향에 대한 이해 정도	65	5.00	10.00	8.66	1.16293
이번연수가 기관의 사업을 계획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까?	65	5.00	10.00	8.28	1.16603
토의가 법인과 시설의 연대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65	6.00	10.00	8.55	1.11846
이번 연수의 전반적인 만족도	63	6.00	10.00	8.87	.99177
시간과 일정에 대한 만족도	65	5.00	10.00	8.46	1.26339
연수 장소에 대한 만족도	65	7.00	10.00	9.12	.97640
유효수(목록별)	63				

모든 문항에서 목표하였던 평균 8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음.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문항인 기관의 사업의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항도 8.28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연수 장소에 대한 만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임. 연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목표에 대한 이해도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개방형 질문

8. 이번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요약 및 중복 삭제, 다수의견 순으로 배열)

<p>계승·발전할 점</p>	<p>1. 새로운 방법 도입을 통한 연수 구성 : 토의방식의 변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성 : 해가 거듭될수록 연계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토의방식(카리타스 카페) : 각 시설과의 만남 용이, 사목지침 연계방안 투표, 참신한 적용법, 델파이 방식을 적용, 새롭게 변화하는 소통 프로그램, 다양한 만남과 깊이 있는 토의(나눔)은 계승 발전해야함 <p>2. 사목방향 및 지침에 대한 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년도 사목방향 해설 • 연수를 통하여 사목지침이나 가톨릭의 정체성에 관하여 지속적인 의견나눔이 필요함. • 일년도 지침에 대하여 부장단과 함께 연수를 진행한 방법 <p>3. 장소 및 식사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편하고 좋았으며, 전반적인 연수 일정과 내용이 연수 참가자들에게 편안하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기획되어 진행되었던 점. • 간식 및 식사가 좋았습니다. <p>4. 시설간의 소통과 교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과 각 기관에 대한 관심과 관계, 카리타스 정신이 더 확장 계승되어야 함,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각 시설의 소통과 정보교류의 기회 제공 <p>5. 연수 운영의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운영을 이번 연수처럼 참석하고 싶다는 원의가 생기도록 다양하게 운영해주시면 좋겠음. 그래도 반나절 정도는 다양한 시간(명상, 둘레길, 등산, 음악회 등)을 할애하는 것을 하면 좋겠음. • 시설장, 부장 연수의 방법론
---------------------	---

쇄신할 점

1. 토의 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

- 토의 시간 : 카리타스 카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음. 순환과정의 시간 텀이 좀 길었던 것 같음. 나눔 4번은 좀 지치므로, 3번 정도면 좋겠음.
- 토론 정리 : 토론이 끝나고 합산하는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완했으면 함.
- 토의 방법에 대한 연구
- 사전 설문조사와 의견들의 핵심을 요약해서 뼈대를 이뤄서 의견이 흩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겠다.

2. 연수 일정에 대한 보완

-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금요일에 9시에 시작하니 출근시간과 겹쳐 힘들었습니다.)
- 2일차 짧게 끝내주거나, 프로그램 없는것도 좋겠음.

3. 더 많은 시설의 참여 필요

- 법인의 시설(미참석 시설)이 한데 모여 더 많은 유익한 발전된 나누기를 하면 좋을 듯함.
- 일정 조정시 유아분과(수녀님)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모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여유로운 구성 필요

- 즐길거리를 한 시간 만이라도 편성하여 연수의 효과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이라는 점과 일정한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장소라 생각되나, 조금의 숨이 함께 되는 곳이기에는 부족하다 생각되어 짐.

5. 간식에 대한 보완

- 간식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적절히 조절해줬으면 함.
- 간식이 많은 것은 감사하나 과자류보다는 과일로 준비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듯.

6. 일정에 대한 보완 필요

- 정해진 일정에 대해 움직이면 좋겠음.
- 효율적인 연수 일정 편성, 기획 필요

7. 기타 의견들

- 경력자의 타종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영성이 다르기에 많이 힘들어 법인에서 생각, 법인에 있으면서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없는 것에 늘 아쉬움이 따릅니다.
- 연수에 대해 적극적인 권유는 좋으나 너무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꼭 사유서를 내야 하는 등 너무 개인적 인권침해에 연결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 연수를 통해 편안하게 시설 간 정보 공유가 더 진행되어야 할 듯하다. (작업장 생산물품 전시)
- 카리타스 산하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법인 소속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전직원이 동참 가능한 행사를 연 1회 정도라도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도해야 할
점

1. 연수 중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

- 상하반기 중 한번은 휴식, 재충전 필요.
- 심, 철저한 힐링 프로그램
- 강의와 전달해야할 것이 많이 강의실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반나절 정도는 둘레길을 무작위로 섞어서 걷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연수가 더욱 역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
- 1박 2일 사목지침이나 교서, 토의 중 아주 짧지만 힐링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나 즐길거리(원예활동 등)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토론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 필요

- 토론방식 중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한다.
- 같은 나이끼리(게임), 그룹지어 이야기 나누기.
- 연계방안 토의 때 호스트의 역할에 따라 주제에 대한 이해, 관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호스트를 선정해야 할 듯.

3. 법인 시설 간의 교류의 시간 추가 배정

- 법인 내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음.
- 연수 참가자 모두가 서로 소개하며 친교하는 시간의 마련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야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연스러운 연계가 더욱 확대되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 각 시설의 잘된 점과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누기 하면 좋을듯 함. 해외연수도 하면 좋을듯 함.
- 산하시설 모범 사례 공유
- 저녁식사 시간에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특강 등의 필요한 강의 배정

- 강의 시 사회교리를 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교리라 해도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을 듯 하기에.
- 새로운 분야나 경영, 영성 등 전문가를 모셔 듣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음.

5. 연수 준비와 내용에 대한 부분

- 연수 준비부터 대표협의회 차원의 참여 준비
-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언제 다루어지는지요?
- 영상자료를 활용한 강의 나눔 활동

6. 기타의견

- 직원에게도 이 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 기관의 월례미사와 관한 논의 필요
- 영성 쪽에서 지도 계획으로 법인과 정체성 확립에 함께 연계되면 각 기관에서 수월하게 진행되어 보다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 참가자 단체사진을 찍는 것은 연수 시작미사 후 찍으면 안될까요?

9.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 카리타스 카페 토론 방법

- 카리타스 카페,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 어려운 주제를 새로운 토의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체험함. 확산의 과제가 새롭게 주어지고, 이 역시도 현장에서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겠음.
- 카리타스 카페를 통해 많은 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점.
- 교구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 연계방안 토의가 난이도가 있는 토의였으며, 여러 기관장님들의 많은 생각을 들 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무엇보다 좋은 기회였다.
- 카페 운영, 돌아가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한 그룹과 한 것보다 좋았습니다.
- 카페운영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나누기 방법, 자원 공유
- 사목교서 지침, 연계방안 토의 과정
- 카리타스 카페에 대해 새롭게 자율성 토의에 감사드립니다.
- 문제 도출방식이 새로워서 좋았다.
- 토의방식 변화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하면 좀 더 잘하고 즐길 것 같습니다.
- 새로운 토의형식, 카리타스 카페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였던 것.
- 카리타스 카페를 통한 토론은 신선하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토론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주제에 비해 토론 시 간이 넘 길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 카리타스 카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다양성 안에서 일치로 도출해 내는 과정과 각자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좋았다.
- 월드카페 형식을 통한 법인 사무국과 시설의 2015년 사업방향 설정
- 모둠별 나눔과 토론하는 방식이 새로워서 좋았으며, 특히 기도의 삶의 원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복지 산하 기관에서 함께 한다는 자체가 좋았습니다.

2. 숙소와 식사

- 저녁식사
- 숙소와 음식에 대단히 만족
- 소고기 식사
- 엉터리 소고기
- 서울시내에 위치해서 오가는 시간과 교통편이 간편해서 좋았음.
- 장소, 최고입니다.

3. 사목교서에 대한 내용

- 기도의 확산 실행의 필요성
- 사목교서, 사목지침 해설이 일목요연히 메시지 위주로 전달되었던 점.(너무 많은 장황한 설명이 예전보다 적 었음.)
- 사목교서와 사목지침에 대한 이해

4. 기타 의견

- 평화방송 콘텐츠 안내
- 법인의 정체성과 이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 이번 연수를 통해 귀하가 얻은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1. 사목교서과 사목지침에 대한 이해, 활용을 통한 정체성 수립

- 내년도 사목지침에 따른 운영 방향을 잡은 점.
- 회장신부님의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사목교서, 사목지침에 대한 구체적이고 편이한 이해
- 사목지침에 대해서 이해 부분과 실천해야 하는 방향이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지구별 본당과의 연계를 통한 사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교회, 교구의 방향과 지침을 알 수 있었음
- 기도문화를 용기있게 실천할 힘을 얻었음.
-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2015년 카리타스 실천사항인 기도방식에 대해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 가톨릭 사회복지의 영성을 현장에서 실천
- 가톨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목지침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목교서를 통한 사목지침을 이해, 시설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겠다.
- 사목지침을 이해하고 시설의 사업방향에 실천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카리타스 정신을 다시금 생활화 해야 한다는 굳은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목방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기관에 반영하는데 직원들과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비신자와 함께하는 기도에 대하여 고민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 지구별 사회복지 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관별 네트워크의 중요성
- 비신자들과 함께하는 공동 비전과 미션 공유하는 방법

2. 소속감

- 법인 소속감
- 우리는 하나
- 법인의 노고와 미래의 비전을 깨어 준비하고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제자신도 발맞추어 노력하고싶다.
- 우리는 하느님 사업을 위임 받은 사람.
- 법인에 대해 더 알 수 있었고, 참여하신 분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됨.

3.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새로운 분야들의 다양한 의견, 연대감 형성, 사목지침의 충분한 이해.
-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습이 인상적 남음.
- 좀 더 많은 시설장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정보획득.
- 분야가 다른 시설장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업무를 진행, 계획하는데 정보의 공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생각의 폭이 다양해졌음.

- 시설에 대한 이해, 법인 산하 기관 종사자들간의 연대성 강화
- 인적 네트워크
- 관계, 교류
- 가톨릭사회복지 소속 핵심인력들과 관계증진
- 카리타스 카페를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 다양한 만남과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법인사무국과 시설장, 부장 간의 긴밀한 관계가 돈독해졌으며, 금번 도출된 2015년 사업방향의 수행의 결과를 다음 회차에 평가가 잘 이루어졌으면 함.
- 나누기를 통해 마음 안에 있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었고, 12월부터 네트워크 실행을 위해 만나기로 한 것.
- 이번 연수를 통해 작은 소모임이 결성되었고 서로를 알고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 새로운 프로그램 시도

- 새로운 프로그램은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준다. 현장에 돌아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 새롭게 항상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카리타스 법인 식구들과 점차 성숙해가는 각 기관, 시설의 국장, 시설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의견을 수렴해서 지키려고 노력해가는 모습

11. 연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카리타스(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 재인식

- 법인 카리타스의 정체성과 신앙, 사랑의 체험관이 각자의 내면에 상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표와 삶의 일관성이라 생각함.
-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공감과 통찰
- 카리타스 영성, 정체성 우선, 가톨릭사회복지의 영성
- 법인 정체성 이해, 법인과 산하 시설 종사자들간의 이해도모 및 교류
- 법인의 미션, 비전을 시설에서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 가톨릭 정체성 정립을 위한 방안 강구나 이를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 수립
- 법인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함
- 카리타스의 가치 공유, 공동체의 친교, 연대성 강화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새해 미션 공유
- 카리타스 정신과 현장에서의 실천방향
- 법인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공유

2. 친교

- 힐링과 소속감, 연대감
- 참여와 소통
- 법인과 시설간의 소통, 소통의 장 필요
- 실무자 모임으로 현장에서의 보람,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이 배정되면 좋겠음.
- 자연스러운 소통의 자리, 공유의 시간
- 법인 내의 시설(다른 시설끼리)의 공유성 필요
- 시설 직원 간 친목도모
-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과 같은 법인 산하기관이란 소속감을 키울 수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서로의 존중과 수용
- 산하기관을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

3. 사목지침에 따른 사업방향 수립

- 법인의 사목지침에 따른 각 기관의 사업방향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점.
- 사도직 소개자리가 있어 네트워크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음.
- 연계 방안 토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법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연계 방안 토의를 통해 얻은 귀중한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기타의견

- 초정 분야에서 좀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섭외를 해주셨으면 한다.
- 의제 선정을 사전준비를 통해 더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 설문지 종합의견

설문문항 점수와 개방형 질문을 볼 때, 전반적으로 지난 연수에 비해 높은 만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평가 설문문항 점수도 목표하였던 평균 8점을 모두 도달하였고, 개방형 설문문항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특히 새롭게 도입한 토의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으나 일부 보완해야할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법인 시설과 교류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배정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휴식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사목교서와 지침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인적네트워크 형성(친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 부분이 연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Ⅲ. 평가를 바탕으로 한 향후 교육 계획 시 고려사항

구 분	내 용
계승·발전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접수를 통한 참석률 향상 도모 2~3개월 전에 사전 접수를 통하여 꾸준히 연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연수 참여를 높였던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동일한 연수 구조를 통한 정체성 강화 도모 사목교서와 지침에 대한 안내, 공통해결과제 모색, 모듬토의라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수를 진행하여, 시설장 및 부장(사무국장)들에게 정체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토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 지난 해까지 진행해왔던 모듬토의의 방식을 떠나 월드카페 형식의 토의 진행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고, 의견을 모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부분이 이번 연수에 가장 큰 성과라고 보여짐. 다양한 토의방법에 대한 시도를 통해 시설과 법인이 함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함.
쇄신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일정에 대한 연초 공지 연수 일정에 대한 연초 공지를 통해 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 • 토의 방법에 대한 숙련도 향상 새로운 토의 방법을 시도하여 접목한 부분은 잘 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의견 도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숙련된 진행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연구와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 지난 연수나 워크숍에 대한 평가 필요 지난 연수나 워크숍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평가 시간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함. 연수나 워크숍의 토의나 성과를 지속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현재 연수와의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짐. • 연수 장소에 대한 고민 원하는 연수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최소 1~2월 중에 연수원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연수와 워크숍에 대한 평가 추가 지난 연수나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여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내년 워크숍부터 이번 연수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시간을 추가하여 배정하도록 할 예정임. • 후속작업에 대한 지속적 공유 토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법인과 시설에서 결정사항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중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카리타스 카페 토의 내용 정리

- 토의내용 정리 및 투표를 통한 2015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실천사항

2015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실천사항

1. 기도

- 1) 기도 방식의 재해석을 통해 내용중심의 공감, 나눔 쌍방향, 직원들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 2) 각 기관의 미션과 비전, 비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고려된 형태의 기도문과 기도모임을 해야 한다.
- 3) 비신자 직원들에게 가톨릭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한다.

2. 가톨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 방안

- 1) 정보와 자원공유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
- 2) 본당과 사회복지 시설과의 관계정립을 위해 지구별 모임을 정례화하고, 지구별이 어려우면 권역별(동서울, 서서울, 중서울) 모임을 하도록 한다.
- 3) 각 지구 혹은 권역 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소규모시설을 지원하도록 한다.

위 사항은 연수를 통해 시설장 및 부장, 사무국장, 법인 직원 모두의 의견을 취합하여 나온 내용들이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 전체 의견 모음

(토의 발표 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도라는 사목교서의 주제를 현장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1. 우리는 어색하더라도 기도를 생활화 해야합니다.
2. 기도의 공통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각 기관의 미션과 비전이 고려되고, 비신자를 배려할 수 있는 형태의 기도문, 기도모임집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3. 기도의 공통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방식도 재해석하여 내용중심의 공감, 나눔, 쌍방향적인 부분, 직원들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4. 기도의 공통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묵상방법 도입, 다양한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우리가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스스로 드러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6. 권역별 기도모임을 해야합니다.
7. 비신자직원들에게 가톨릭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8. 기도를 이끌어주는 스승, 협조자 멘토가 필요합니다.

II. 가톨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 본당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시설장들이 먼저 본당의 사목위원으로 적극 참여하자.
2. 본당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각 기관의 장점을 중심으로 본당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3. 본당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정립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신부님, 시설장)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본당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정립을 위하여 직원미사, 대상자 미사의 참여요청을 통한 본당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본당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정립을 위하여 본당신부님들과 사회사목신부님들의 정기적인 면담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본당과 사회복지시설 관계정립을 위하여 지구별 모임이 정례화 되거나 안되면 권역별 모임이 정례화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서울카리타스의 정보와 자원이 공유될 수 있는 사이트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지구 혹은 권역 내 멘티멘토 관계형성을 통한 소규모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9. 법인 내 시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대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10. 법인 내 시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설간 상부상조사업이 필요합니다.
11. 법인 내 시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 모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2.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3. 대표자회의 역할강화를 위해 대표자 선발체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14. 대표자회의 역할강화를 위해 안건은 아래에서 위로 상정되어야 하며, 협의회 회의결과는 반드시 전체가 공유해야 합니다.
15. 대표자회의 역할강화를 위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분야가 불분명한 곳을 위한 특수협의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16. 대표자회의 역할강화를 위해 법인 사무국과 충분한 의사소통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7. 우수사례발표회가 필요합니다.